

<서평>

탁신은 필요악인가? 절대악인가?

파숙 풍파이치트 · 크리스 베이커. 정호재 역. 『탁신: 아시아에서의 정치비즈니스』. 2010

박 은 흥*

이 책은 Pasuk Phongpaichit and Chris Baker, *Thaksin*, Silkworm Books(2009)의 번역서이다. 저자들은 탁신 집권기의 중반기인 2004년에 초판을 냈는데,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탁신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친탁신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이를 부정하는 반탁신세력에 해당하는 ‘노란셔츠’와 친탁신세력에 해당하는 ‘붉은셔츠’간의 거리의 투쟁이 반복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던 시점에 제2판 증보판을 냈다.

한국사회에 관광국가 정도로 알려진 태국이 정치, 경제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는 탁신 친나왓의 집권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탁신 친나왓 수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1997년 7월에 발생한 통화위기가 금융위기를 넘어서 전 산업부문의 위기로 일파만파 전이되고 있었을 때 태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긴축조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응 조치를 생각할 수 없었다. 당시 추연 민주당 정부는 IMF에 가장 순응적인 정부였을지도 모른다. 가까스로 태국이 경제파국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

*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ehpark@skhu.ac.kr).

만 그 후유증은 컸다. 대량파산과 대량실업으로 태국사회에 민족주의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국왕도 이러한 반IMF 정서를 ‘자족경제’(เศรษฐกิจพอเพียง)라는 개념으로 대변하였다.

1997년 7월부터 시작된 태국금융 위기 구제에 나선 IMF는 위기의 원인을 기업들의 과도한 금융차입과 불합리한 투자에서 찾으면서 이를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은 여러 국제 언론매체들과 학계에서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연고자본주의(crony capitalism)로서의 ‘동아시아 발전모델’에서 찾은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기도 했다. 위기 당시 IMF는 금융사들을 비롯해 고부채 회사들이 대규모 파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값싸고 가치가 덜한 자산들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할인매각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재차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강권하였다.

이때 IMF의 일방주의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실리적으로 재빠르게 활용한 장본인이 탁신 친나왓이었다. 이 책에서 파숙 풍파이킷과 크리스 베이커는 탁신의 성장배경, 출세경로, 정치전략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안의 “한국어판 출간에 부쳐”에서 저자들은 탁신에 대한 입장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요컨대 이들이 보기에 탁신은 “엄청난 규모의 돈을 벌기 위해 정계로 진입한 비즈니스맨”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민중의 지도자로 등극”하였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영웅이기도 하지만 더러운 정치인이기도 하였다.” 그러기에 탁신은 선과 악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에는 다면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탁신에 대한 이들 저자의 복잡한 심정을 “역사란 때로 무척 골치 아픈 것”이라고 우회해서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파숙 풍파이킷과 크리스 베이커는 고품격 대중서를 가장 많이 집필한 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책 못지않게 태국학 연구에 큰 기여를 한 저서는 *Thailand: Economy*

and Politics (1995)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비롯해 많은 저서와 논문에서 날카로운 문제의식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태국의 역사가 민중과 함께 어떻게 역동적으로 진보해왔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의 역사해석 속에서 혁명, 좌파운동, 사회주의, 급진주의가 재조명되었다. 번역서 『탁신: 아시아에서의 정치비즈니스』에서도 저자들은 탁신진영에 결합한 과거 좌파인사들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1976년 10월 탐마삿 대학살 때 공산주의자들의 근거지였던 정글로 도피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이를테면 빠라팻 뽀야차랏은 탁신정부의 농촌정책 수립에 기여하였다. 학생운동가 출신의 끄리앙까몬 라오파이룻은 탁신의 타이락타이당(TRT)이 운동권 출신들과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다. 저자들의 논지를 보자면 이들이야말로 타이락타이당이 사회적 의제를 구체화하는데, 또 탁신에게 같은 세대에 속하는 운동권 인사들과 언론인들을 소개해줌으로써 탁신의 정당성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한 장본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문헌을 통해서 저자들이 ‘운동권 엘리트들’이 탁신의 정치비즈니스에 이용된 것으로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 점에 있어서 2006년 9월 군부 쿠데타로 탁신이 퇴출된 이후 출간된 제2판 증보판의 탁신에 대한 관점은 쿠데타 이전에 출간되었던 초판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증보된 내용에 해당하는 이 번역본의 결론 부분에서 탁시노크라시(Thaksinocracy)를 비즈니스의 정치(the business of politics)로 보는 저자들의 보다 뚜렷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탁신이 이룩한 부의 축적은 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특권은 끊임없이 정치적 수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탁신 스스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는 계기가 됐다. 그의 정치 이력은 그러한 사업에서 창출된 비정상적인 이득이 가져온 거대한 부의 축적에 기

초했다. 탁신은 입버릇처럼 자신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 강조했다지만, 실제 소유권이 그의 가족에 있었고 또한 조세 피난처나 정부기관을 활용해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 홍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인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그에겐 돈을 벌겠다는 탐욕이 동기부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 하지만 그에게는 이를 억제할 도덕적 권위나 의지가 없었다. ...** 탁신에게는 점증하는 권력을 활용해 사회와 경제의 변화를 추동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려는 욕망이 혼재돼 있었다. ... 결국 그는 공공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차 권위주의로 이동했다. ... 탁신은 부패와 권위주의로 공격을 받자 그 해결책으로 포퓰리즘을 선택했다. 비록 탁신이 프리미어리그 우승 복권을 사는 일보다 ‘일반 서민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했지만, 그는 감각적으로 대중이 정치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딕은 서평자의 강조) ... 탁신은 이에 호응하기 위해 이전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였다.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감으로써 권력과 특권에 젖은 이전 독재자의 모습과 차별화를 꾀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수 엘리트 중심체제에 갇혀 있던 과두 정부의 위협 요소이자 변화의 원동력으로 변신한 것이다(472-474쪽).

이들의 해석에 따르자면 탁신의 정계 진출은 철저하게 탐욕스러운 사적 동기에서 출발하였고, 이것이 공적 관심사로 이어지면서 소수 엘리트 중심의 과두체제에 대한 도전의 양상을 보이자 막강한 대중적 지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탁신의 포퓰리즘은 부패와 권위주의로 얼룩진 탁신체제에 대한 비판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이다.¹⁾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탁신의 타이락타이당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추언 민주당 정부의 IMF 순응형 경제정책에 대한 범 국민적 불만이 고조되고 있던 시점에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정책에 적극 반영한 가운

1) 탁신체제를 포퓰리즘의 비교론 관점에서 논한 줄고로는 박은홍(2012), “포퓰리즘의 아시아적 변형: 탁시노크라시(Thaksinocracy)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모델의 적용”, 박은홍(2011), “포퓰리즘 대 시민사회: 2001년의 필리핀과 2006년의 타이”가 있다.

데 출범하였다. 이미 2001년 선거 공약에 저가의 의료서비스 공급, 농가부채 상환유예, 전국 7백만호가 넘는 촌락에 개발기금 할당 등이 포퓰리즘 정책의 중심적 의제였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포퓰리즘 정책이 위로는 탁신 캠프에 결합한 ‘운동권 엘리트들’과 무관하지 않았으며, 아래로는 농촌의 저개발, 빈곤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주민조직(PO), 비정부기구(NGO)의 압력과 연관된 것이었다. 물론 탁신은 정치 마케팅 차원에서 위와 아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나섰다. 그러기에 부패와 권위주의에 대한 적극적 방어수단으로서 포퓰리즘을 선택했다는 해석은 우선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탁신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개혁성향의 엘리트들과 대중들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정치권력을 지나치게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필립스 쉬블리(Philips Shively)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신의 이익을 우선할 것이라는 가정이 크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유난히 이기적이기 때문인 것이 아니다. 보통은 개인의 이익이 국가에 해가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쉬블리는 권력자들이 전체사회에 필요한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개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동기의 양립가능성(incentive compatibility)이 필요하다고 본다(Shively 2008: 232). 정치를 호모 에티쿠스(homo ethicus)적 관점이 아닌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이 책의 저자들은 재계 출신의 정치인인 탁신의 권력의지에 대해 과도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셈이다. 탁신 옹호자들은 탁신이 영리 동기에 충실했다고 하지만 전례없었던 빈민층을 겨냥한 사회개발정책에도 충실했던 그의 동기 양립

형 행동, 다시말하자면 철저하게 사적동기에서 출발했지만 빈곤문제 해결이라는 공공성에도 기여한 그의 호모 에코노미쿠스적 행동이 쿠데타라는 반헌정적 행위로 심판받아야 할 만큼 정의롭지 못한 행위였냐, 나아가 탁신을 비즈니스의 정치인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실제 태국의 국가권력을 공유하고 있는 왕실, 군부, 관료, 자본, 이들 가운데 호모 에코노미쿠스부터 자유로운 집단이 과연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²⁾

이 책에서 탁신은 절대악으로 비추어지기도 하고 필요악으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탁신 친나왓의 등장은 그동안 태국의 정치권력구조, 시민권력구조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전면에서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태국 정치위기의 중심에 서있는 탁신으로부터 헤겔의 ‘역사이성의 간지(奸智)’를 떠올리게 된다.

이책의 저자들은 다른 대부분의 태국 지식인들처럼 금권 포퓰리즘의 맥락에서 탁시노믹스(Thaksinomics)를 비판하는데 앞장섰다. 이 번역본은 그 대표적 문헌이다. 물론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왜 저자들이 탁신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인색한지를 접하게 될 것이고, 그 설득력과 논리의 일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번역서가 출간된지 2년 가까이 되었기에 서평 자체가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태국에서는 ‘탁신 없는 탁신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기에 이 책의 가치는 퇴색되지 않고 있다. 전문 용어 번역상 다소 아쉬운 부분이 몇 군데 있지만 이 번역서가 학계가 아닌 언론계에 몸담고 있는 역자의 국제감각과 진지한 지역학적 관심의 소산이기에 적극 권하고 싶다.

2) 이러한 관점에 서있는 대표적인 문헌으로는 Ji Ungpakorn(2007), *A Coup for the Rich: Thailand's Political Crisis*가 있다.

〈참고문헌〉

- 박은홍. 2011. “포퓰리즘 대 시민사회: 2001년의 필리핀과 2006년의 타이.” 『동향과전망』 81.
- _____. 2012. “포퓰리즘의 아시아적 변형: 탁시노크라시(Thaksinocracy)에 대한 라틴아메리카 모델의 적용.” 『경제와 사회』 93.
- Ji Ungpakorn. 2007. *A Coup for the Rich: Thailand's Political Crisis*. Workers Democracy Publishing.
- Shively, Philips. 윤진표 외 역. 2008. 『정치학개론』. 서울: 명인문화사.

